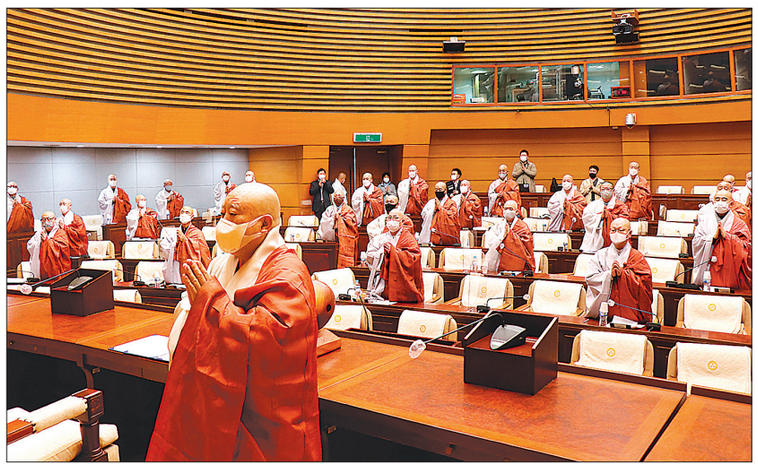
조계종, '선암사'논란 강경대응 나선다

특별법 제정 · 교구불사 결의 잇따라

조계종, 3월 9일 특별법 입법예고
선암사 제20교구 지위 회복 골자
주지 겸직 · 본사 중복 취적 가능
3월 10일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
원행스님, '단결된 불교의 힘' 강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은 3월 10일 진행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선암사 문제를 공유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계종 · 태고종 간 소유권 논란의 중심에 선 순천 선암사와 관련, 조계종이 선암사의 제20교구본사로서의 지위 회복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선암사 문제를 보고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범종단적 차원에서 움직임을 본격화해 주목된다.

조계종은 3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조계종 선암사'에 권원 없는 '태고종 선암사'가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 대해 정상화를 이뤄 정화정신을 회복하고 한국불교 전통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지위회복과 교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선암사는 제20교구본사의 지위로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며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사업 △선암사의 포교와 교육, 문화, 복지, 홍보사업 △선암사 신도조직 및 관리 △선암사 재산관리 △기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교구본사로서의 지위는 회복하되 정상화 특별법인 만큼 일반적인 교구본사 행정과도 차이를 둔다. 주지는 산중총회 없이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종무원법 제7조 겸직금지 원칙의 예외로 둔다. 교구 재적승 역시 다른 재적교구와 중복으로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최고 심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두며, 관리정상화를 위해 정화결사단과 산하 재가호법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화결사단은 선암사 주지가 교구 재적승을 중심으로 구성, 조직되며 정화결사단장은 주지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3월 10일 진행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보고에 이어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 구성 경과'와 '선암사 교구본사 재지정 및 정상화 특별법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암사와 관련된 대법원의 충격적인 판결로 한국불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법이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집행부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불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36대 총무원이 출범한 지 3년을 맞아 안팎으로 힘든 현실에서도 종단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협조와 후원 속에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불교는 위기를 강한 응집력을 통해 극복해 온 만큼, 코로나19의 위협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결된 불교의 힘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미래 위한 신행혁신, 계속되길"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 3월 11일 퇴임

지역 전법 확산 과제 제시
초심돌아가 도심포교 매진
원행 스님 "아름다운 회향"



신행 혁신을 기치로 수행하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문화 정착을 이끌어 온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임기를 회향했다. 3월 11일 퇴임식이 열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는 불교 각계 포교현장가들이 모여 스님의 회향을 축하하며 5년간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발전을 다짐했다.〈사진〉

퇴임식은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발자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의 송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퇴임사 및 별빛사리 중창단의 송가 등으로 이어졌다.

지홍 스님은 이날 퇴임사에서 "지금 이 자리의 분들은 수십년간 포교현장에서 헌신해 온 참 일꾼들"이라며 "사부대중이 이분들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우리 종단의 포교가 살아난다. 더욱 힘을 내어 전법 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기 포교원에 대해 7대 포교원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

지홍 스님은 이제 광명 금강정사에서 도심포교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지홍 스님은 "저는 50여년 전 출가시절 초심으로 돌아간다. 은사 스님 지도아래 도심포교운동을 시작하고, 1994년 종단개혁을 전후해 중앙종단 여러소임을 맡아 쉼없이 달려왔다"며 "수행자로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왔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고, 수행의 길에 굴곡도 있었다. 포교원장이라는 중책을 내려놓고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축원하고 기도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퇴임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5년간 포교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경험을 갖고 정성을 다해 이끌어 준 지홍 스님에게 감사하다.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치사를 전했다.

이날 퇴임식 현장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 종무원들과 수많은 신도들의 감사선물 전달을 비롯해 "온화하고 따스한 미소처럼 연꽃길만 걸으세요" 등의 스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법화종 총무원장 자격논란, 3월 중 판가름

대전지방법원, 3월 9일 심리종결
서안스님 · 지성스님 각각 소제기
전과 · 이중승적 · 선거 절차 쟁점
재판부 "유예 끝나도 전과 존재"

법화종 혼란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2건의 당선 무효 ·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의 법원 심리가 종결됐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중 총무원장 당선인의 자격 및 선거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3월 9일 중앙종회의원 서안 스님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그리고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성 스님이 제기한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잇따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안 스님이 제기한 소와 관련 3월 23일까지 거암 스님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 명령하는 것으로 두건 모두 심리를 종결했다.

이번 가처분의 공통 쟁점 사안은 △전과기록의 실효성 여부 △이중승적으로 인한 제적 △선거 직전 구성된 3개 교구의 종회의원 자격 등 선거 절차상 문제 등이다. 지성 스님의 경우 이에 추가로 자신의 분한신고 및 분담금 미납을 문제삼아 후보자격을 박탈한데 대한 부당성 확인과 거암 스님의 법납에 대한 확인을 청구했다.

재판을 참관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리에서 '거암 스님의 전과로 인한 부적격' 문제와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전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고 거암 스님측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과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종법상 전과 기록이 총무원장 부적격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화종은 종법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 전과자에 대해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는 전과 사실이 실효(失效)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 임명이 원천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법화종 총무원장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 · 논리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안 스님이 선거절차상 위법사유로 지적한 통영 · 안정사 · 진주교구 종회구성 및 선거인단인 교구 종회의원 선출 과정에 관련, 거암 스님 측에 3월 23일까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자료는 종법상 50개 사암을 전제로 교구 종회의원 1인을 선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급조 논란이 있는 3개 교구 내 50개 사암의 존재 등 적법성 여부, 그리고 해당 교구 종회의원의 적법성을 소명하라"는 취지다.

한편 재판부가 추가 심문 없이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거암 스님의 총무원장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르면 3월 중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무원장 자격 논란으로 선거 후 더욱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법화종이,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기후위기 극복대안 모색 나선다

환경위원회, 3월 11일 회의서
'대응소위원회' TF팀 구성키로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조계종이 나선다. 조계종은 향후 '기후위기대응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적 의제 마련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종단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을 출범하는 것은 조계종이 처음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는 3월 11일 온라인으로 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위원회 산하에 '기후위기 대응소위원회'를 출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등 각종 기후재난의 심각성이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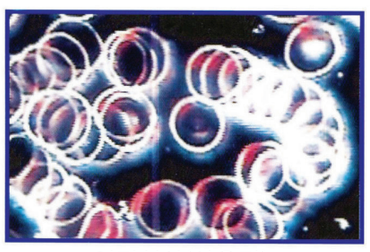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것이 아니다'는데 공감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을 가동키로 했다. TF팀은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기후위기대응소위원회의 활동과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를 맡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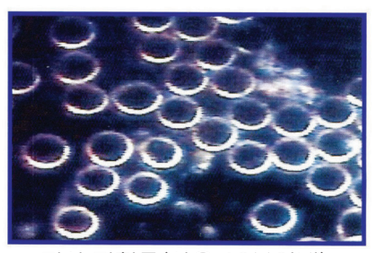
무엇보다 조계종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생명의 종교로 일컬어지는 불교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불교기후행동을 조직하고 각종 실천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범불교적으로 확산되기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종단 차원의 첫 조직으로 꾸려질 '기후위기 대응소위원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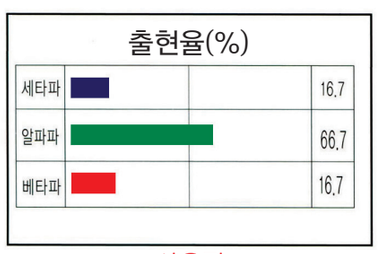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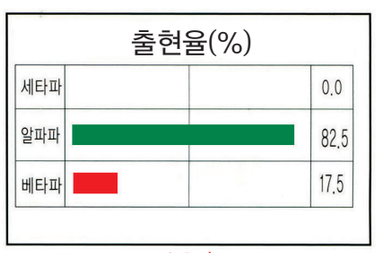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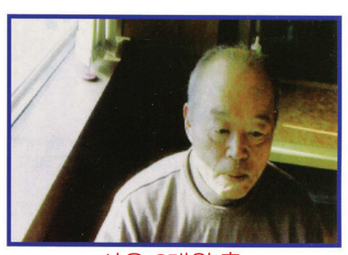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를 해주면 축농증, 비염 완화 및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